



사랑하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2 코린 13,11)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업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자주 얘기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인 니코데모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서로 용기를 주고, 한마음으로 평화롭게 돕고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폴은 영국에서 살아요. 같은 반 친구들 두 명이 폴을 자주 놀렸어요. 폴은 친구인 크리스토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계속 저러네.”



크리스토프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예수님께 그 애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며칠 후, 폴은 자신의 생일에 모두와 파티를 하려고, 학교에 과자 한 상자를 들고 갔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두 명의 친구들과 같이 과자를 옆 반에도 나눠주자고 하셨어요. 폴은 친한 친구들과 하고 싶었지만, 놀리는 두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두 친구는 놀라워하며 함께 나눠주러 갔고, 그날부터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